

“**섬 친구들과 과학의 즐거움 나눠요**”

지스트 사회공헌단, 찾아가는 과학캠프 개최

- 지스트 사회공헌단 피움, 신안군 비금중 방문해 과학수업·진로 멘토링 펼쳐
- 매년 개최... 재능 기부 통해 지역 교육 및 진로 격차 해소 앞장서



[사진1] 지스트 사회공헌단 '피움(PIUM)'이 신안 비금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과학 캠프>를 개최하고 학생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임기철) 사회공헌단 '피움(PIUM)'이 12일과 13일 이틀 간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 있는 비금중학교를 방문해 지식 나눔 사회공헌활동인 <지스트 찾아가는 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지스트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회공헌단 '피움'은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 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쉽고 흥미롭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스트 찾아가는 과학캠프>는 피움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광주·전남의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흥미롭고 다양한 과학 수업·체험 프로그램과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찾아가는 과학캠프는 신안군 비금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자동차 브레이크의 이해(기계공학 분야) ▲혈액형 판정과 적정기술 원심분리(생명과학·적정기술 분야) ▲친환경 물병 오토 만들기(지구·환경 분야) ▲자율주행 자동차 이해하기(AI·기계 분야) 등 흥미로운 주제의 수업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캠프에 참여한 지스트 재학생 멘토단은 '장애물 회피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 '자동차 브레이크 만들기 키트' 등 미래 첨단 산업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들로 수업을 준비해서 비금중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스트 기계공학부 지술근 교수도 비금중학교를 방문해 '유체역학과 비행기, 그리고 비금도'라는 주제로 특강과 진로 멘토링을 진행했다.



[사진2] 지스트 사회공헌단 '피움'이 진행한 <찾아가는 과학캠프>에서 비금중 학생들이 장애물 회피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캠프에 참가한 비금중의 한 학생은 "원래는 과학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과학캠프를 통해서 과학에 즐겁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사회공헌단 '피움'은 올해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찾아가는 과학캠프> 이외에도, ▲랜선멘토링(온라인 학습·진로 멘토링) ▲AI 꿈나무 캠프(오프라인 체험형 AI 교육 프로그램) ▲지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캠프(지스트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과학캠프) 등을 통해 지식 나눔 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 전남 신안군 비금중학교, 전남 장흥군 안양중학교, 전남 목포시 하당중학교

이러한 '피움'의 다양한 지식나눔프로그램 활동 덕분에 지스트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진로탐색캠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기철 총장은 "지스트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할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며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소외지역의 과학 꿈나무들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